

# 데이터의 흐름 속 문학적 발견

## : 明末清初 錢謙益의 시 창작의 혁신적 탐구

— ‘詩史’ 인식 규범으로서 ‘世運’의 어휘장 재배열과 시편의 구현 양상 —

박 유 빈\*\*

<目次>

<p>I. 서론</p> <p>1. ‘세운(世運)’의 개념 재정의와 ‘시사(詩史)’ 문제</p> <p>2. 시 데이터의 분석 단위 설정 및 ‘지표화’</p> <p>II. ‘세운’의 ‘시사’적 조직과 어휘장의 다층적 재편</p> <p>1. 거시적 전환: 1644년 전·후 어휘장의 재배열과 변별표지의 부상</p>	<p>2. 중간층의 구조화 분석: 17개 시집의 시계열 궤적과 특징 어휘 검증</p> <p>3. 미시적 결속: 대표 시편의 ‘자세히 읽기’를 통해 본 ‘시사’의 구현방식</p> <p>III. 결론</p>
--	---

<중문초록>

本文以《初学集》和《有学集》所收钱谦益诗作2153首为例，运用数字人文计量分析和细读方法重新考察‘世运’在钱谦益诗学中的地位。既有研究将‘灵心’、‘世运’、‘学问’看成是互相联系的核心部分，但‘世运’如何在整体诗作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24S1A5B5A17031376).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의词汇场结合表象群中得到显现, 还缺少充分的实证依据。本文以此不以‘世运’当作一个时代背景, 而将其理解为组织历史现实并进入诗歌语言的‘诗史’认识规范。研究方法上首先使用字符bigram中的TF-IDF和Keyness观察一六四四年前后的词汇场重组, 然后通过十七个诗集群中不断出现的核心词和heatmap进行中层验证, 最后结合代表诗篇细读其如何作为意义生成, 结果发现‘1644以前’阶段更多出现疑问、缺席、关系性呼唤和景物性标志, ‘1644以后’阶段更多出现自我指涉、亡国记忆、历史空间的‘标志’。从诗集排列看, 这种变化并非一律扩散, 而是在一部分后期诗集群中出现更强的局部聚集。所以本文认为钱谦益诗中的‘世运’不是对时代背景的被动性反映, 而是对历史认识和诗歌表达的规范化认识。

## I. 서론

명말청초(明末清初) 전겸익(錢謙益, 1582~1664) 시학에 관한 기존 연구<sup>1)</sup>는 주로 영심(靈心)·세운(世運)·학문(學問)을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핵심범주로 파악해 왔다.<sup>2)</sup> 특히 전겸익이 시문창작의 근본원리를 “‘영심’에서 싹트고 방향이 정해지며, ‘세운’에서 잠복하였다가 깨어나며, ‘학문’에서 힘차게 자라난다.”<sup>3)</sup>와 같은 삼항구조로 조직하고, 이들 세 요소

- 1) 楊思賢, 〈錢謙益詩歌의 “棋局” 意象〉, 《古典文學知識》, 제143집, 2009. 朱莉美 〈錢謙益詩歌研究〉, 中國文化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古尊師, 〈錢謙益詩歌三變〉, 北京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등 연구 논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선별된 작품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체 시편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것은 朱莉美가 유일하나 전통적인 문학해석 방법론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 2) 裴世俊, 〈錢謙益詩歌研究〉, 蘇州大學, 博士學位論文, 1985. 丁功誼, 〈錢謙益文學思想研究〉, 首都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5. 孫之梅, 〈靈心·世運·學問—錢謙益의 詩學綱領〉, 《山東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996. 張永剛, 〈靈心·世運·學問—論錢謙益의 詩學體系〉, 《大連大學學報》 제29집, 2008. 朱莉美, 〈錢謙益詩歌研究〉, 中國文化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에 보임.

가 ‘등잔의 심지(炷)’, ‘기름(油)’, ‘불(火)’과 같이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시학 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주시해왔다.<sup>4)</sup>

이에 대해 孫之梅, 張永剛 등은 전겸익이 명·청 교체기의 정치적 위기와 학술의 공소화(孔疏化)에 대응하여 이들 세 요소를 핵심으로 한 시학체계를 제기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강력한 경(經)·사(史)의 식과 경제치용의 실학사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sup>5)</sup> 이는 전겸익의 시가 ‘역사 인식’과 ‘시’라는 문학형식의 결합이라는 문제 위에서 이해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들은 첫째, 영심·세운·학문을 병렬형으로 기술하거나 대표 시 작품에 대한 질적 독해를 통해 개별 범주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이들 요소가 ‘시 작품 전체’의 거시적 층위에서 어떠한 위계와 상관관계 속에서 작용하는지를 구조적으로 검토·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둘째, 전겸익의 시문집인 《초학집(初學集)》은 1620년(39세)부터 1643년(62세)까지 23년간, 《유학집(有學集)》은 1644년(63세)부터 1664년(83세)까지 약 20년에 걸친 시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1644년(명·청 왕조 교체)을 전후한 전겸익의 시 창작 변화를 논의하면서, 개별 작품과 시집의 창작시점에 대한 정밀한 고증없이 시집의 편제 또는 정치사적 사건을 방증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연구에서 포착한 변화가 실제 창작 원리의 전환을 반영하는 것인지, 초학·유학집의 편제 분류에서 비롯된 결과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

3) 《有學集·題杜蒼略自評詩文》: “시문(詩文)의 도(道)는 영심에서 싹트고 방향이 정해지며, 세운에서 잠복해 있다가 깨어나며, 학문에서 힘차게 자라난다. 이들의 만남은 마치 등잔에 심지와 기름과 불이 있어 불꽃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夫詩文之道萌折於靈心, 蟄啟於世運, 而茁長於學問, 三者相值, 如燈之有炷有油有火而焰發焉.)” 박유빈, 《錢謙益의 ‘反經’의식과 ‘循本’ 창작론의 내적 통합성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241쪽 참조.

4) 박유빈, 위의 논문, 241쪽.

5) 孫之梅, 《錢謙益與明末清初文學(增訂版)》,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2010, 234-255頁. 張永剛, 〈“由經術以達於世務”——錢謙益的學術路徑〉, 『鎮江高專人文』, 2014, 37-38頁.

려운 사례들이 있다. 셋째, ‘세운’을 ‘시사(詩史)’의 규범으로 설명하는 논의들은 있으나,<sup>6)</sup> 그것이 실제 어떤 ‘어휘장(시어군)’과 참조구조를 통해 시의상으로 가시화되는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논문이 우선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겸익 시학체계의 핵심요소 중 ‘세운’이 차지하고 있는 중심적 위치이다.李明軍은 ‘세운’을 시인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신세(身世)나 조우(遭遇)를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sup>7)</sup>張永剛은 ‘영심’과 ‘학문’의 발현은 궁극적으로 ‘세운’ 중심의 유기적인 구조 안에서 명제화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sup>8)</sup> 특히 孫之梅가 전겸익이 재정의한 ‘시사’를 특정시기의 시가 형성한 문학현상, 즉 “일종의 난세 문학이다.”<sup>9)</sup>라고 논의한 것은 사실상 ‘세운’이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흐름을 넘어 ‘시(詩)’와 ‘사(史)’의 관계를 매개하는 상위 인식규범으로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케한다. 그러므로 ‘세운’은 ‘영심·세운·학문’이라는 삼항구조 속의 평면적인 요소 하나가 아닌, 전겸익 시학체계를 분명히 들여다보기 위해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그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겸익 시학체계의 핵심요소인 ‘세운’을 ‘시사(詩史)인식의 규범’으로 재정의하고, 이것이 전체 시 작품(2,153수) 안에서 어떻게 시어화 되는지를 디지털 인문학 기반의 정량분석과 자세히 읽기(Close Reading)<sup>10)</sup>의 결합을 통해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6) 郝潤華, 〈錢注杜詩與詩史互證方法〉, 北京: 中華書局, 2019, 23-114頁.

7) 李明軍·朱利俠, 〈靈心·世運與文學——錢謙益的人生際遇與儒家詩學體系之構想〉, 《唐山師範學院學報》 제36집, 2014, 30頁.

8) 張永剛, 위의 논문, 48頁.

9) 孫之梅, 위의 책, 345頁.

10) 오진영·김희진, 〈대학생의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자세히 읽기 (Close Reading) 연구 : ‘에포케’ 태도를 강조한 ‘고전 읽기와 토론’ 강좌 수업 사례〉, 《교육문화연구》 제31집, 2025, 621-649쪽.

## 1. ‘세운(世運)’의 개념 재정의와 ‘시사(詩史)’ 문제

본 연구에서 ‘세운’은 문자 의미 그대로의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흐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인이 무엇을 보존하고, 어떤 방식으로 시 안에 역사를 기록하며, 무엇을 역사적 근거로 채택할 것인지 그 일련의 과정을 규율하는 ‘시사(詩史)’<sup>11)</sup>의 시학규범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겸익의 ‘시사(詩史)’는 역사적 사실을 시로 구현한다는 수사적 선언에서 그치지 않았다.<sup>12)</sup> 이는 기존 연구가 전겸익의 ‘시사’ 의식을 고찰한 논의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孫之梅가 <호치과이서(胡致果詩序)>를 인용하며 고찰하였듯이,<sup>13)</sup> 전겸익은 <<시(詩)>·<<서(書)>·<<춘추(春秋)>>를 하나의 계열로 파악하고, 나아가 “시의 뜻은 역사에 뿌리를 두지 않을 수 없다”<sup>14)</sup>라고 단언함으로써 시의 본질적 가치가 역사의 실재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전겸익이 두보(杜甫) 이후의 시를 ‘시사’로 지명하고, 남송 말기 유민시를 난세 문학의 한 형식으로 재평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李明軍은 전겸익이 <<열조시집(列朝詩集)>>을 통해 명대의 시를 수집·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로써 역사를 보존하였다(借詩以

11) 嚴志雄, 《錢謙益의 ‘詩史’理論與實踐》, 北京: 中華書局, 2019, 74頁. 郝潤華, 위의 논문, 23-114頁.

12) 전겸익의 ‘시사(詩史)’에 대해, 凌鳳翔은 <<초학집>> 서문에서, 전겸익의 시는 “모두 시사(時事)의 큰 일과 관련되어 있어, 한 왕조의 전고(典故)를 갖추고 있으니, ‘시사(詩史)’라 하기에 충분하다(皆有關時事之大, 可備一朝典故, 足稱詩史).”라고 하였다. 錢謙益, <<錢牧齋全集·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2230頁. 雷宜遜은 “후대 사람들이 전겸익의 시에서 역사상 세운의 흥망성쇠, 정사의 청탁(淸濁), 인물의 옳고 그름, 풍속의 후함과 박함 등 본말이 담긴 참된 문학창작을 찾아낼 수 있다(後人可以從錢氏的詩裡追尋歷史上世運隆汙·政事淸濁·人物是非·風俗厚薄的原委真跡. 因此, 他的詩, 也被稱為明清之‘詩史’).”라고 하였다. 雷宜遜, <錢謙益的著作·人品和詩學>, <<中國韻文學刊>> 제2집, 1998, 13頁. 박유빈, 위의 논문, 292쪽 참조.

13) “<胡致果詩序>首先從詩史同源立論, 說明詩之義本於史, 爲詩史說作了歷史的闡釋.”, 孫之梅, 위의 책, 570頁.

14) <<有學集·胡致果詩序>>: “詩也, 書也. 春秋也, 首尾爲一書, 離而三之者也. 三代以降, 史自史, 詩自詩, 而詩之義不能不本於史.”

存史)’라고 평가하였으며,<sup>15)</sup> 朱莉美, 裴世俊의 연구 역시 전겸익의 문학 실천을 ‘시로써 역사를 보존하고’ ‘시로써 역사를 기록하고’, ‘시로써 역사를 증명한다’ 전형으로 평가하고 있다.<sup>16)</sup> 따라서 ‘세운’은 시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아니라 역사의 흥망성쇠가 지닌 원천을 시어(詩語) 속으로 이끄는 시학규범으로 이해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운’은 ‘영심’, ‘학문’과 구분되며, 중심 개념으로서 선행적으로 해석해야 할 학술적 당위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영심’이 어떤 방식으로 촉발되고, ‘학문’이 어떤 방식으로 학문의 소양을 반영하는 시적언어의 선택이나 배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구조화하느냐의 문제이며, 이 지점에서 ‘세운’은 ‘시사’의 인식규범으로서 해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겸익의 시학 체계(영심·세운·학문)를 분절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세운’의 시학규범을 전겸익 시 전체 차원에서 검증함으로써, 그 시학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원리가 실제 시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 2. 전겸익 시 데이터의 분석 단위 설정 및 ‘지표화’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초학집(初學集)》, 《유학집(有學集)》에 수록된 전겸익의 시 총 2,155수 가운데 결측치를 제외한 2,153수이다.<sup>17)</sup> 작품의 창작시기는 연보기반 매핑을 통해 확정된 연도 범위<sup>18)</sup>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이때 1644년(명·청의 왕조 교체)을 분석의 기준점으로 삼아 ‘1644년 이전과 이후’, ‘1644±2년의 경계구간’으로 구분하였다.<sup>19)</sup> 다만,

15) 李明軍, 위의 논문, 32頁.

16) 朱莉美, 위의 논문, 295-298頁.

17) 수집한 시 원문 데이터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text만을 남기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원문 텍스트를 기반으로 시집(詩集)명, 창작시기, 체제, 제목, 내용, 출처(시집명) 등 컬럼으로 분류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여기에서의 ‘1644년’은 절대적인 인과선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왕조의 교체, 사회의 구조적 변화, 개인의 생애 경험, 《초학집》·《유학집》의 편제분류와 같은 중첩된 조건 속에서 어떤 표지가 구조적으로 달라지는가를 비교하는 기준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임을 밝혀둔다.

본 논문의 최소 분석단위는 작품 1수이다. 개별 시편을 하나의 텍스트 문서로 삼아 빈도 가중치(tf-idf)와 핵심어(Keyness)를 산출하고, 다시 그 시편을 시집군 단위로 확장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작품 단위의 어휘장 재배열을 통해 ‘세운’의 시어화 양상을 포착하고, 이후 시집군 배열, 대표 시편에 대한 질적 독해를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세운’이 전경의 시에서 ‘시사(詩史)’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시학 인식규범으로서 작용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어휘장 지표이다.<sup>20)</sup> 한

작품ID	창작연도	체제	제목	내용	출처1	출처2
100001	甲寅	律詩	吳門送福清公還閩八首其二	上帝高居儼肅雍	初學集	還朝詩集
100002	甲寅	律詩	吳門送福清公還閩八首其三	介圭爭望錫河山	初學集	還朝詩集
100003	甲寅	律詩	吳門送福清公還閩八首其四	聖母上賓遺詔出	初學集	還朝詩集
100004	甲寅	律詩	吳門送福清公還閩八首其五	甘陵南北久分岐	初學集	還朝詩集

18) 개별 작품의 창작시기는 연보를 기반으로 《초학집》과 《유학집》, 그리고 각 하위 시집별로 출처와 창작시기를 매칭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

제목	시집명1	시집명2	창작연도	나이
壬申元日	牧齋初學集卷第十	崇禎詩集(六)	1628~1636	47~55
過清江浦遙寄故人	牧齋初學集卷第十一	桑林詩集	1637	56
松談閣印史歌……	牧齋初學集卷第十三	試帖詩集(上)	1638	57
題宋徽宗杏花村圖	牧齋初學集卷第十三	試帖詩集(上)	1638	57

19) 여기서 ‘1644±2년’은 측정불확도(measurement uncertainty)의 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측정 결과의 불완전성을 가리킨다. 해당 구간의 오분류가 결과를 왜곡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한 보조 범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건의 단순한 전·후 비교가 아닌 ‘세운’의 재배치가 어디서부터 구조적으로 드러났는가를 엄밀하게 관찰하기 위한 설계이다.

20) “어휘장은 공통된 의미 속성을 가진 연관성 있는 낱말 집단이다. 어휘장의 변

자 정제 프로세스(CJKclean)를 거친 시 텍스트를 바탕으로 문자 바이그램(bigram)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 출현 빈도와 가중치 TF-IDF, 핵심 시어(Keyness, LLR, LogRatio)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특정 국면에서 두드러지는 중심 어휘장을 비교·분석하고, 1644년 전·후 어휘장에서 변별 지표로 부상한 특징시어를 포착한다. 둘째, 시집 배열에 따른 지표이다. 본 논문은 연보 기반 ‘창작 연도 매핑(mapping)’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체 시집군(17개)의 상위 30개 특징 시어를 추출한다. 이를 다시 반복 출현빈도, tf-idf총합, tf-idf평균, tf-idf최대값으로 계량하였다. 또한 이를 히트맵(heatmap)으로 시각화함으로써 반복 표지로 나타난 ‘시어’의 분포, 응집의 특징을 분석한다. 셋째, 대표 시편(詩篇)의 ‘자세히 읽기’ 지표이다.<sup>21)</sup> 본 논문은 1644년 전·후의 중심 어휘장에 속한 시어들을 매칭하여 그 결속이 가장 긴밀하게 묶인 작품을 대표 시편으로 선정하였다. 이때 시집별 어휘장 응축도, 역사 개체명의 참조 밀도(NER), 1644년 전기 대비 후기(TF-IDF/Keyness) 가중치를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였다.<sup>22)</sup>

나아가 본 논문의 논의는 거시·중간·미시 층위의 세 단계 분석을 결합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세운’이 어휘장 차원에서 어떻게

---

화는 개별 낱말의 의미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성뿐만 아니라 낱말 집안의 역할이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체계성을 제공한다.” 이광호, <의미소 ‘必’의 어휘장 변화>, 《한국어문학회어문학》, 제105집, 2009, 1쪽.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어휘장’은 특정 범주 안에서 반복적으로 결속하는 시어군의 관계망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시어군’이 개별 시어들의 집합이라면, ‘어휘장’은 이 시어들이 작품, 시집의 배열에서 나타내는 분포, 응집 등의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처음 한 차례만 ‘어휘장(시어군)’으로 병기하고, 이후는 ‘어휘장’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한다.

- 21) 최인자, <문학 기반 ‘자세히 읽기’ 교육의 재인식>, 《청람어문교육》, 제85집, 2022, 324쪽.
- 22) 이는 대표 시편 선정을 임의적인 직관이 아닌 재현 가능한 데이터 규칙 위에 올려놓기 위함이다. 본 논문에서 대표 시편의 ‘자세히 읽기’는 데이터 기반 분석과 분리된 별도의 직관적 해석이기 이전에 앞선 정량분석의 결과를 작품 수준에서 검증하고 환원하는 단계이다.

가시화되는지를 다룬다. 2.1에서는 tf-idf와 keyness 척도를 기반으로 1644년 전·후 어휘장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전겸익 시 전체 텍스트의 전환 방향성을 분석한다. 2.2에서는 17개 시집군의 특징시어의 흐름을 종합하여 중간단계 검증을 수행하고, 2.3에서는 정량분석 지표를 통해 선정할 대표 작품을 ‘자세히 읽기’ 함으로써, 수치로 파악한 어휘장의 재배열이 실제 작품 내부에서 어떠한 시학적 실체로 구현되었는지 확인한다.

본 논문의 데이터 기반 분석은 전겸익의 시학 개념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적 절차는 아니다. 기존 연구가 제시한 ‘세운’의 이론적 성격을 전겸익 시 전체 텍스트라는 범위에서 재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한 논증 수단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량 분석과 질적 분석을 분리하지 않고, 어휘장의 재배열, 시집 배열 속 시어의 분포·응집의 양상, 대표 시편에서의 구현이라는 단계적인 구조를 통해, ‘세운’의 시사(詩史)적 시창작의 조직방식을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II. ‘세운’의 ‘시사’적 조직과 어휘장의 다층적 재편

### 1. 거시적 전환: 1644년 전·후 어휘장의 재배열과 변별표지의 부상

전겸익의 시학이론 체계에서 ‘세운’은 역사적 사실을 시창작으로 조직하는 ‘시사’의 인식규범으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 ‘세운’의 문제는 당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얼마나 많이 언급하였는가 보다는 그것을 시 텍스트 안에 담아내기 위해 어떠한 어휘장을 반복적으로 호출하고, 그 선택과 조합이 시어운용에 어떤 규범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 텍스트 내부의 원리로 해석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전겸익의 시학이론을 ‘시사(詩史)’의 계보 안에서 해석해 온 기존 연구들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그는 ‘영심’·‘세운’·‘학문’의 시학 핵심요소 가운데 ‘세운’의 개념정의와 그 위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 학문(學問)을 축적하여 그 뿌리를 깊게 하고, 기(氣)를 길러 그 뜻을 채우며, 충효와 측달의 마음을 성대하게 하고, 은유돈후의 가르침으로 도야한다. 그 징조는 성정에 있고 학문에 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천지의 운행과 시세의 변화, 음양의 성쇠의 조짐에 있다.<sup>23)</sup>
- ㉡ 무릇 세상천지의 기이하고 괴이한 모든 것들은 신세(身世)의 사이에 서로 촘촘히 엮여있다. 그러므로 삼라만상이 다 시를 짓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sup>24)</sup>

위의 글에서 전경익은 문학창작의 충동은 ‘영심’과 ‘학문’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실제 결정권은 ‘세운’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가 ‘세운’에 이와 같은 결정권을 쥐어준 것은 그 바탕에 ‘시사동원(詩史同源)’<sup>25)</sup>의식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有學集·贈王平格序》에서 시(詩)와 사(史)의 관계를 설명하며 그 이유를 밝혔다.

23) 《有學集·胡致果詩序》: “學殖以深其根, 養氣以充其志, 發皇乎忠孝惻怛之心, 陶冶乎溫柔敦厚之教, 其征兆在性情, 在學問, 而其根抵則在乎天地運世·陰陽剝復之幾.”

24) 《有學集·書瞿有仲詩卷》: “凡天地之內, 恢詭譎怪身世之間, 交互緯紉, 千容萬狀, 皆用以資爲詩.”

25) 《有學集·胡致果詩序》: “《시경》, 《서경》, 《춘추》는 시작과 끝이 하나로 귀결된다(이들은 하나로 귀결된 것이) 나뉘어 셋이 된 것이다(詩也, 書也, 春秋也, 首尾爲一書, 離而三之者也).”, “세운이 변화하면, 풍(風)·아(雅)도 시대와 함께 변화한다(運世遷流, 風雅代變)”, 錢謙益, 《列朝詩集小傳·丙集》, 中國古典戲曲資料庫(url, <https://ccddb.net/>) 등에서 ‘시사동원(詩史同源)’의 개념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며, 孫之梅 등의 연구에서 ‘시사동원’을 난세 문학의 규범으로 공식화 하고, 시가 역사기록의 공백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논의의 맥락이 바로 이 지점을 지지하고 있다. 孫之梅, 위의 책, 570頁.

《시경》이 사라진 후에 《춘추》가 지어졌다. 《시경》, 《춘추》의 요지는 ‘왕도(王道)’를 밝히고, ‘세운’을 붙드는 것이다.<sup>26)</sup>

‘세운’은 전겸익의 시학체계 안에서,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의 흐름만이 아닌 문학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시사’인식 규범으로서의 시학 대상이기도 하다.<sup>27)</sup> 다시 말해, 《시경》의 현실 반영과 ‘시교(詩教)’의 효용, 《춘추》의 역사 의식이 모두 ‘왕도를 밝히고, 세운을 붙드는 것’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겸익은 시(詩)와 사(史)의 관계를 “시의 뜻은 사에 뿌리를 두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명제로 요약하였다. 나아가 그는 《시경》, 《춘추》, 국사(國史)의 연속성을 근거로 “시가 곧 국사이며, 시(詩)가 사(史)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계승할 수 있다.”<sup>28)</sup>라는 논지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시사(詩史) 인식 규범화의 논지는 전겸익의 “운세천류(運世遷流), 풍아대변(風雅大變)”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29)</sup> 그는 풍(風)·아(雅)의 변화를 시대흐름과 분리할 수 없다는 인식을 토대로 ‘시대를 경계지어 갈라놓는 복고주의의 단절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고수하였다.<sup>30)</sup> 이를 바탕으로, 그는 문학이 ‘세운의 흥망성쇠를 드러내는 하나의 징조이자 세상을 구체하는 침(針)과 약(藥)이다.’와 같은 주장을 통해, ‘세운’이 그저 시 창작이 반영해야 할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 문학창작의 실천논리로 전환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31)</sup>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볼 때, ‘세운’의 변화를 확인하는 첫 단계는 역사사건

26) 《有學集·贈王平恪序》：“詩亡然後，春秋作。詩，春秋之大指，明王道、扶世運。”

27) 박유빈, 위의 논문, 266쪽.

28) 《有學集·胡致果詩序》：“孟子曰：‘詩亡於春秋作。’春秋未作以前之詩，皆國史也。……謂詩之不足以續史也，不亦誣乎？”에 보임.

29) 錢謙益, 《列朝詩集》, 識典古籍(url, www.shidianguji.com).

30) “‘運世遷流，風雅代變’，因啾運而變‘風雅’，豈能‘害時代爲鴻溝’”. 張永剛, 위의 논문, 48頁.

31) “詩人所陳者，皆亂狀淫形，時政之疾病也；所言者，皆忠規切諫，救世之針藥也。反之，文學亦可爲世運興衰之征兆.”，李明軍·朱利俠, 위의 논문, 31頁.

에 대한 언급 자체의 증감보다 시인의 역사인식이 어떤 어휘장으로 조직되는가를 보여주는 일이어야 한다.

이에 본 절은 이 같은 논의를 개념적 수준에서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겸익 시 전편에 나타나는 어휘장의 재배열을 계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세운’이 실제로 시 텍스트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시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CJK정제본을 기반으로 문자 bigram tf-idf와 Keyness를 산출한다. 이때 tf-idf는 각 시기 집단의 중심 어휘장을 보여주고, keyness(LLR/LogRatio)는 1644년이라는 시대의 변곡점을 전후로 나타난 어휘장의 변별 표지를 보여준다.<sup>32)</sup> 이 두 지표를 결합하였을 때 1644년 전·후 시어 운용의 변화가 단순히 시어빈도의 증감 때문인지, 아니면 어휘장 전체의 중심 이동 때문인지를 안정적으로 논증할 수 있다.<sup>33)</sup>

32) 이때 1644년±2의 측정불확도(measurement uncertainty) 구간은 경계 구간으로 별도 처리하여 해당 구간의 오분류가 결과를 왜곡하지 않도록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는 Alan I. Barreca(2011)의 논문에서 ‘주변 데이터의 오분류가 RDD 결과를 왜곡할 수 있음을 입증한 시각을 시계열 데이터인 창작 연도(1644)의 측정 오차를 통제하는 데에 원용하였다. Alan I. Barreca, Guldi M. Lindo Glen Waddell, Savingbabise? Revisitingtheeffectofverylowbirthweightclassification, *Quarterlyjournalofeconomics* 126 no.4, 2011, 2117-2123쪽.

33) 주지하듯이 중국 고전 시 텍스트는 단어의 경계가 안정적이지 않아 형태소/단어 단위 분절이 분석 결과의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문자 bigram’ 기반 분석으로 고정해 특정 분절기의 결과에 의존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분절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문자 결합의 반복과 변별을 통해 어휘장의 중심 이동을 안정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나아가, 중국 고전 시에 사용되는 시어는 상고, 중고 한어의 어휘가 우위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상고·중고 한어의 품사 태깅 원칙을 기준으로, 의미 긴밀성, 어휘 구조의 긴밀성 등을 고려하여 의미적 결합도가 높은 2gram을 추가로 추출하여 문자 단위 2gram과의 대조를 통한 ‘불용어’ 목록을 정리하여 데이터의 오분석을 방어하고자 하였다. 鄭童哲恒, 〈上古漢語分詞與詞性標注加工規範〉, 《語言文字應用》 제4집, 2023, 96-97頁 참고.

〈표 1〉 1644년 전·후 시어 어휘장의 tf-idf 지표 대비<sup>34)</sup>

출현시기	시어 (bigram)	tf-idf	출현시기	시어 (bigram)	tf-idf
1644(前)	何處	0.006156	1644(後)	人間	0.009579
1644(前)	依然	0.005835	1644(後)	分明	0.005772
1644(前)	人間	0.005643	1644(後)	春風	0.005127
1644(前)	可憐	0.005328	1644(後)	蓮花	0.005125
1644(前)	秋風	0.005236	1644(後)	文章	0.005052
1644(前)	春風	0.004813	1644(後)	老夫	0.004938
1644(前)	與君	0.004475	1644(後)	秋風	0.004742
1644(前)	生春	0.004328	1644(後)	諸天	0.004473
1644(前)	紛紛	0.004277	1644(後)	白頭	0.004413
1644(前)	不見	0.004245	1644(後)	依然	0.004270
1644(前)	梅花	0.004032	1644(後)	何曾	0.004015
1644(前)	明月	0.003943	1644(後)	秦淮	0.004001
1644(前)	早春	0.003851	1644(後)	劫灰	0.003941
1644(前)	風雨	0.003786	1644(後)	可憐	0.003881
1644(前)	一笑	0.003764	1644(後)	衣冠	0.003843

〈표 1〉은 1644년 명왕조의 멸망 전·후 전경의 시 창작에서 운용한 시어의 상위 표지가 어휘장의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운과 시적 주체, 정서적 감응과 시 의상(意象)이 결합하는 방식’<sup>35)</sup>이 근본적으로 재배열되고 있음을 함께 보여준다.

34) 구체적인 계산식은 t: 문자바이그램, d:작품1수 g:1644전후 집단이며,  $tf-idf(t,d) = tf(t,d) \times \frac{\log \frac{N}{df(t)}}{\sqrt{\sum \frac{w(t,d)}{w(t_j,d)^2}}}$ 의 개념식을 활용하여, L2정규화를 거친  $tf-idf(t,d) = \frac{w(t,d)}{\sqrt{\sum w(t_j,d)^2}}$ 의 식을 사용하였다.

35) 《初學集·瑞芝山房初集序》: “상황(境)과 만나 서로 감응하고, 그 상황이 서로 죄어올 때, 우월한 심사가 제멋대로 분탕질하여 시문(文)에 뜻을 두지 않아도 시문이 생겨나니, 이것이 이른바 능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境會相感, 情偽相逼, 鬱陶駘蕩, 無意於文, 而文生焉.)”, 박유빈, 위의 논문, 169쪽 참조.

먼저 위의 표에서 '1644년 명왕조 멸망 이전'에 운용된 상위 어휘장을 살펴보면, '何處(0.006156)', '依然(0.005835)', '人間(0.005643)', '可憐(0.005328)', '與君(0.004475)', '不見(0.004245)' 등 타인을 향한 호명('與君'), 그 부재의 확인('不見'), 과거의 반추('依然'), 그에 따른 시인의 정서('可憐') 등 성격의 시어들이 어휘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秋風(0.005236)', '春風(0.004813)', '梅花(0.004032)', '明月(0.003943)', '風雨(0.003786)'와 같은 자연 경물을 축으로 형성된 어휘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36)</sup> 다시 말해 '1644년 이전' 시기의 시적 발화는 시인이 역사적 현실을 직접적인 언어로 명명하기보다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 상실의 정서, 자연경물 등을 매개로 현실을 우회적으로 구조화하는 시어 운용의 경향을 보여준다. 사실상 <표 1>은 '1644년 이전'에 어떤 시어들이 상대적으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시적인 분포 자료이다. 따라서 <표 1>의 결과만으로 역사인식이 어떻게 정서적 감응과 자연경물의 융합을 통해 시 텍스트 내부에 형상화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다. 다만, 이들 어휘장의 시어 표지가 전면에서 자리한다는 것은 결국 1644년 이전 전경역의 시적발화가 이들 시어의 결합을 통해 현실을 우

36) 본 절에서 산출된 tf-idf는 개별 시어의 절대적인 출현빈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경역 시 텍스트 정제에 문자 바이그램 단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수천에서 수만에 이른다. 이때 각 시기별 시 데이터의 길이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각 단어의 tf-idf 제곱의 합이 1이 되도록 벡터의 크기를 강제 조정하는 L2정규화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tf-idf는 수만 개의 어휘장 속에서 해당 어휘가 점유하고 있는 '상대적 의미 비중'을 가리킨다. 특히 idf는 전체 시집에 고르게 등장하는 상투적인 어휘나 허사의 가중치를 수학적으로 억압한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상위 어휘로 뚫고 올라왔다는 것은 해당 시어가 습관적으로 운용된 것이라기보다 특정 시기나 시집의 주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시적주체가 의도적으로 선택·배치한 것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해당 가중치(tf-idf)가 시 텍스트 내부에서 차지하는 상대 순위, 비교 집단 간 변별 표지의 변화. 이와 함께 상승하는 중심 어휘장의 결속력 등에 집중하여 어휘장의 재배열 양상을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표 1>을 살펴보면, 상위에 위치한 어휘장은 1644년 이전 시학의 '핵심 표지'로서의 어휘장(시어군)임을 충분히 방증할 수 있다.

회적으로 조직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전겸익 자신의 시학 규범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것은 결코 각각의 어휘가 갖는 사전적 의미에 천착하는 해석이 아니다. 전겸익 스스로가 시를 ‘지(志)의 발현’인 동시에 ‘경물과의 융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규정한 시학 근거에 기초한 것이다.<sup>37)</sup> 즉, 전겸익은 《初學集·範壘卿寺集序》와 《有學集·題燕市酒人篇》에서 “시란, 지(志)가 나아가는 바이다. 시인의 성정을 도야하고 경물에 폭 빠져 노닐면서 각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읊어내는 것이다.”<sup>38)</sup>, “시는 ‘지(志)’를 말하는 것이다. 지(志)가 충족하면 정(情)이 생겨나고, 정이 옴트면 기(氣)가 움직인다. 마치 땅속의 양분이 돌아나는 것 같고 제 철에 우는 벌레 소리 같아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변화하며, 시대에 곤궁(窮)하고 세운(境)에 꺾박당해 이리저리 복잡하게 넘치면서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고금의 ‘참된 시(真詩)’가 된다.”<sup>39)</sup> 등의 주장을 통해, 시 텍스트 안의 경물과 시대적 상황이 단순한 시공간의 물리적 배경이나 수사 기법에 머무르지 않고 시적 주체의 내면적인 지(志)·정(情)·기(氣)를 격발시키는 매개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秋風’, ‘春風’, ‘梅花’, ‘明月’, ‘風雨’와 같은 경물은 시적 주체의 내면 속 정(情)과 세운이 맞닿는 지점에서 역사 현실을 우회적으로 감각화하고 미학적으로 변용하는 핵심 어휘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40)</sup>

37) 李明軍·朱利俠, 〈靈心·世運與文學—錢謙益的人生際遇與儒家詩學體系之構想〉, 《唐山師範學院學報》 제36집, 2014, 30頁.

38) 《初學集·範壘卿寺集序》: “詩者志之所之也. 陶冶性靈, 流連景物, 各言其所欲言者而已.”

39) 《有學集·題燕市酒人篇》: “詩言志, 志足而情生焉. 情萌而氣動焉, 如土膏之發, 如候蟲之鳴, 歡欣嗷殺, 紆綏促數, 窮於時, 迫於境, 旁薄曲折而不知其使然者, 古今之真詩也.”, 박유빈, 위의 논문, 277쪽.

40) “錢謙益這樣長言短語, 橫說豎論, 意在闡明詩歌的本質在於抒情, 情是詩歌萬劫不滅的生命. 爲了不使他的言情說與公安派的‘喜怒哀樂·嗜好情欲’混爲一談, 總是‘情’, ‘志’並重, ‘古之爲詩者, 學溯九流, 書破萬卷, 要歸於言志詠物, 有物有則, 宣導情性, 陶寫萬物, 學詩之道, 亦如是而已.”, “《有學集》: ‘情深而文明,

반면, ‘1644년 명왕조 멸망 이후’ 집단의 상위 어휘장에서는 이와 다른 중심 이동이 나타난다. ‘人間(0.009579)’, ‘分明(0.005772)’, ‘老夫(0.004938)’, ‘白頭(0.004413)’, ‘分明(0.005772)’, ‘文章(0.005052)’ 등과 같이 시적 주체(‘老夫’, ‘白頭’), 종교 질서의 참조(‘諸天’, ‘蓮花’), 특정 공간의 지칭(‘秦淮’), 왕조 멸망의 흔적(‘劫灰’) 등을 매개로 역사적 사실을 의상(意象)화 하는 경향으로 재편성 되었다.

위의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老夫’, ‘白頭’와 같이 시인 자신을 지칭하는 시어가 중심 어휘장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전겸익이 “시 속에 그 사람이 있다면(詩其人) 그것은 곧 인간 성정(性情)의 시요, 형상(形狀)의 시가 된다. 따라서 의관(衣冠)이나 우스갯소리와 같은 것도 어느 하나가 아닌 것이 없다.”<sup>41)</sup>라고 언급하며 시어 안에 자기 성정과 형상, 언행을 직접 투영하는 방식을 시학원리로 정의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孫之梅 역시 이에 대해 ‘시기인(詩其人)’은 시를 통해 시인의 일상 언행과 성정 뿐만 아니라 역사적 자취까지 모두 ‘진실하게(眞)’ 투영하는 것이라고 논 의한 바 있다.<sup>42)</sup> 그러므로 전겸익이 제기한 ‘시기인’의 원칙에 의하면 ‘老夫’, ‘白頭’와 같은 시어군은 생물학적 노년을 상징하는 의상이기에 앞서 쇠망해가는 시대에 속한 자기 형상과 역사적 자의식이 강하게 묶여있는 ‘지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秦淮’, ‘劫灰’, ‘諸天’, ‘蓮花’ 등은 특정한 역사 공간, 왕조 멸망의 잔영, 종교적 질서가 중심화된 어휘장을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 즉, ‘세운’의 인식 규범을 반영한 시어의 선택이 역사적 현실을 ‘사건의 시간’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지 않고, 더욱 확장된 기억과 의미로 묶어 이를 전면에 내놓는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張永剛의 논의로 뒷받침

包涵雅故, 蕩滌塵俗) 廣抒軸性情, 鉤貫風雅, 爬梳於物情世變) 孫之梅, 위의 책, 588頁, 521頁.

41) 《初學集·邵幼青詩草序人其詩》: “詩其人, 則其人之性情詩也, 形狀詩也, 衣冠笑語, 無一而非詩也.”, 박유빈, 위의 논문 276쪽.

42) 孫之梅, 위의 책, 243頁, 529頁 참고.

할 수 있다. 그는 전겸익이 “문장은 기운(氣運)에 관계한다.”<sup>43)</sup>를 근거로 ‘복고파가 초래한 문단의 시대적 단절’을 비판한 것에 주목하며, ‘세운’을 영심, 세운, 학문 가운데 문학비평의 상위 규범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그는 전겸익의 “시의 징조는 성정에 있고 학문에 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천지의 운행과 시세의 변화에 있다.”<sup>44)</sup>를 근거로, 성정과 학문이 시에 드러나는 징조라면 그 근본을 결정하는 것은 ‘세운’이라는 논지를 제기하였다.

‘文章’의 경우, 전겸익은 명·청 교체기(1645~1646), 청초 시기(1647~1664)에 두 왕조에서 출사한 오명의 행적과 그에 대한 참회, 반청복명(反淸復明) 활동에 이르는 복잡한 정치 행로를 걸어왔다. 이와 같은 삶의 굴곡 속에서 학술·문학적 모색을 거듭하며 노성(老成)의 경지에 들어선 문학적 성취를 이루어 나갔다. 예를 들어, 1653년부터 1656년까지는 전겸익의 학술활동이 주를 이룬 시기이다. 그는 1653년에 <탁거병거전집서(卓去病去全集序)>를 통해 경학의 문제점과 그 실재를 짚어내었고, 1654년에는 <뇌고당문선서(賴古堂文選序)>를 통해 경학, 사학, 문학의 문제점을 종합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전겸익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학적 견해를 ‘文章’으로 밝혀두었다. 1654년의 <존출제시집서(尊拙齋詩集序)>, <서릉이장자시서(西陵二張子詩序)>, <우경당시서(耦耕堂詩序)>, 1655년의 <지비당시집서(知非堂詩集序)>, <주의의산시집서(注李義山詩集序)>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1656년의 <금강경송론소기회초연기론(金剛經頌論疏記會鈔緣起論)>, <심경약소소초연기론(心經略疏小鈔緣起論)> 등 경학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을 기록한 ‘文章’들이 이를 방증한다.<sup>45)</sup>

43) “文章關乎氣運”，張永剛，위의 논문，48頁.

44) “《有學集·胡致果詩序》：“其征兆在性情，在學問，而其根抵則在乎天地運世·陰陽剝復之幾。”

45) 方良(2017), 『錢謙益年譜』, 北京: 中國書籍出版社. 참조.

〈표 2〉 1644년 전/후 핵심어(keyness) 척도 검증 top15<sup>46)</sup>

시어	1644이전 빈도 pre_freq	1644이후 빈도 post_freq	1644이전 대비 logratio_pre_over_post	llr_g2
蓮花	1	20	-3.968481	25.736322
生春	19	0	5.089510	22.212251
諸天	2	18	-3.083417	18.681076
紅豆	1	15	-3.565126	18.142787
須彌	0	11	-4.719454	17.933502
故國	2	17	-3.003247	17.267004
秦淮	1	14	-3.468910	16.645717
彈指	1	13	-3.365817	15.158215
三千	1	12	-3.254786	13.681755
山河	1	12	-3.254786	13.681755
世界	2	14	-2.731945	13.105674
明主	11	0	4.327670	12.859100
約略	16	1	3.263540	12.728218
今年	27	5	2.126036	11.977624
七十	3	15	-2.342733	11.741299

위 <표 2>에 제시한 핵심어(keyness)를 살펴보면, 이는 1644년 전·후 전점의 시학의 전환이 ‘시어 빈도의 변화’라는 우연의 결과물이 아닌 고도로 응축된 어휘장의 구조적인 변화임을 보여준다. 전점의 시학이 1644년을 기점으로 ‘어느 쪽으로(로그비율)’, ‘얼마나 확고하게(로그우도비)’ 변화했는가를 입증하기 위해 핵심어 분석(keyness)<sup>47)</sup>의 두 가지 하위 척도인 로

46) keyness(llr\_g2)(logratio)의 경우, a:1644이전, b:1644이후, c:npre-a, d=npost-b로 설정하여 기대값 E(a,b,c,d)를 구하고, 로그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G^2 = 2 \left( a \log \frac{a}{E_a} + b \log \frac{b}{E_b} + c \log \frac{c}{E_c} + d \log \frac{d}{E_d} \right)$  또한, 로그우도비의 경우 두 집단 중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척도로, 0빈도를 막기 위해 a=0.5를 설정하였다.  $\text{LogRatio}_{\text{pre/post}}(t) = \log_2 \frac{p_{\text{pre}}(t)}{p_{\text{post}}(t)}$

47) Gabrielatos, C, Keyness analysis: Nature, metrics and techniques. Corpus

그우도비(llr\_g2)와 로그비율(logratio\_pre\_over\_post)을 적용하였다. 왜냐하면 이들 지표는 시어의 빈도 비교를 넘어 시어운용 비율 차이의 유의성과 실제 편중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이다.<sup>48)</sup>

먼저 ‘1644년 명 멸망 이전’의 시 텍스트 안에서 높은 로그비율을 보인 ‘生春(llr22.212251)’, ‘今年(11.977624)’, ‘明主(12.859100)’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시어는 명대라는 정치 질서 안에서 시적주체가 확고한 구심점(‘明主’)을 가지고 있었으며, 천지자연의 자연스러운 운행(‘生春’)과 안정적인 현재(‘今年’)의 감각 속에서 영위한 시어들이 두드러졌다.

반면, ‘1644년 명 멸망 이후’ 집단의 시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질서를 투영한 시어들이 소멸하고 그 중심 자리를 아래의 어휘장이 차지하였다.

첫째, 망국의 기억과 역사 공간을 직접 호출하는 시어들이다. ‘故國(17.267004)’, ‘秦淮(16.645717)’, ‘山河(13.681755)’<sup>49)</sup>의 상승은 멸망 왕조에 대한 애도이자 지리적 공간에 망국의 기억을 주입하는 ‘시사’규범의 실천을 의미한다. 전경익은 더이상 자연경물을 통해 우회하지 않고, 왕조 멸망의 잔영이 새겨진 역사공간을 상징하는 시어들을 어휘장의 중심에 배치한 것이다.

approaches to discourse, Oxford: Routledge, 2018, 225-258쪽.

48) ‘로그우도비(Log-Likelihood Ratio)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1644년 전후 특징 시어의 출현과 소멸이 ‘세운’이라는 역사적 압력이 시 텍스트에 가한 필연적이며, 유의미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로그비율(logratio\_pre\_over\_post)’은 1644년 전·후 두 집단 사이에서 나타내는 빈도 차이가 어느 쪽(1644년 이전/이후)에 기울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때 양의 값은 1644년 이전, 음의 값은 1644년 이후의 시 텍스트로 그 중심이 이동했음을 보여준다.(url, [https://alvinntnu.github.io/NTNU\\_ENC2036\\_LECTURES/keyword-analysis.html](https://alvinntnu.github.io/NTNU_ENC2036_LECTURES/keyword-analysis.html) 참조.

49) ‘山河(13.681755)’는 ‘1644년 이후’시기의 변별 표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모든 용례에서 즉시 역사적 공간의 표지로 귀속시키지 않았다. 이 논문은 ‘山河’가 ‘故國’, ‘秦淮’, ‘行宮’ 등과 의상군을 이루어 상실된 역사공간으로 호출되는 경우(예, 《有學集·秋日雜詩二十首》: “漢東湧樓閣, 莊嚴永明師, 揮手棄山河, 大梁一布衣.”, 《有學集·西湖雜感》: “戎馬南來皆故國, 江山北望總神州. 行都宮闕荒煙裏, 禾黍叢殘似石頭.” 등)를 제한적으로 읽었으며, 그 외에는 보편적인 자연경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둘째, 전겸익은 항청(抗淸)과 항청(降淸)을 모두 경험한 인물로 말년에 들어서면서 불교에 귀의하였으며, 이후 그 종교적 사유와 질서에 압도된 시어들을 가시화하는 경향을 보였다.<sup>50)</sup> <표 2>에서 급격히 부상한 어휘장을 살펴보면, ‘蓮花(25.736322)’, ‘諸天(18.681076)’, ‘須彌(17.933502)’, ‘三千(13.681755)’, ‘世界(13.105674)’<sup>51)</sup>로 이어지는 불교적 질서의 시어와 함께 찰나의 시간을 나타내는 ‘彈指(15.158215)’ 등의 시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붕괴한 현실의 역사를 초월적인 층위로 이끌려는 ‘세운’ 인식의 치열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전겸익 개인의 노년기(七十)를 가리키는 시어와 노년기 삶의 근거지(紅豆)를 지칭하는 시어들이 등장하였다. 이는 앞서 논의했던 전겸익의 ‘시사’의식과 ‘난세 문학’의 긴밀한 관계로 이어진다. 난세의 시는 단지 현재의 사건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망국의 기억과 문화의 상실을 시어들의 결속으로 만든 의상군 안에 응축하는 방식으로 ‘세운’을 조직하기 때문이다. 즉, ‘七十’, ‘紅豆’와 같은 시어는 망국의 세운이 시적 주체의 신세와 삶으로 침투한 흔적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紅豆’의 경우, 이것은 1644년 이후 전겸익 삶의 공간을 지칭하는 대상이자 역사의 상실과 문화의 잔영이 함축된 장소 표지로 운용되었다.<sup>52)</sup> 앞선 ‘故國’, ‘秦淮’, ‘山河’와 같

50) <佛敎祝闕下的錢謙益詩論體系探微>에서는 불교사상이 전겸익의 시론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고 있다. 王彥明, <佛敎祝闕下的錢謙益詩論體系探微>, <文化與詩學> 제1집, 2017, 110-118頁. 또한, <牧齋與佛敎>에서는 불교사상이 전겸익의 학술, 문학 사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시각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전겸익의 불학사상이 단순히 혹은 우연히 그의 ‘시학’ 실천에 반영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王彥明, <牧齋與佛敎>, 福建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51) 본 논문에서 蓮花, 諸天, 須彌 등 불교 관련 시어는 ‘불교 아카이브(url, <https://kabc.dongguk.edu>)’의 개념용어 사전을 통해 관련 시어 목록을 확정하는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최종 판정은 각 시어가 실제 시편의 맥락에서 불교, 종교 질서와 결합하는가를 수동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52) “1654년(전겸익 73세). 이 시기 전겸익은 장강 유역에 홍두 산장(紅豆山莊)을 지어 은신처로 사용하며 각 지역과 연락하고 해상 소식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임. 方良, 위의 책, 296頁.

은 역사 표지들이 왕조의 기억과 망국의 흔적을 직접적으로 호출하였다면, ‘紅豆’는 시적주체의 실제 삶의 공간 안에 왕조의 기억과 망국의 흔적을 담아내는 방식을 보여준다. 결국 ‘紅豆’는 ‘세운’을 직접 호출하는 시어라기보다 세운의 흐름이 현실세계 내부에서 어떻게 재배열되는가를 보여주는 표지로 읽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전겸익의 ‘시사’의식은 단순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사건의 기록’과 구별된다. 난세 문학은 역사사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그 역사성을 획득하지 않는다. 그것은 ‘故國’, ‘秦淮’, ‘山河’와 같은 역사공간의 표지, ‘白頭’, ‘老夫’, ‘七十’과 같은 시적 자아의 표지, ‘紅豆’와 같은 현실세계의 장소표지 등을 긴밀하게 결속시킴으로써 난세의 경험을 층층이 조직한다. 그러므로 전겸익의 시에서 ‘세운’은 결국 난세의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흐름이 아니라, 시사(詩史)의 인식 규범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본 논문의 논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표에서 제시한 ‘핵심어(keyness)’ 지표는 1644년 전·후의 변화가 단순한 어휘장의 교체가 아닌 ‘세운’이 시어의 운용에 가하는 힘의 본질적인 변화임을 알 수 있다.

## 2. 중간층의 구조화 분석: 17개 시집의 시계열 궤적과 특징 어휘 검증

2.1에서는 1644년을 기점으로 분류한 전·후 두 집단의 시 텍스트를 대상으로 ‘어휘장의 재배열’ 양상을 살펴보았다. 2.2에서는 이러한 어휘장의 재배열이 연대기적 흐름을 기준으로 편제된 각 시집군 내에서 어떤 분포와 응집, 그리고 전환의 양상을 드러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2.1에서 1644년 전·후 집단의 중심 어휘장의 차이를 통해 ‘세운’의 이동을 거시적인 층위에서 파악하였다면, 본 절에서는 《초학집》, 《유학집》 내부의 시집 편제와 시집의 연대기적 연속성을 따라가면서 그 변화가 1644년 전·후 두 집단의 평균 차이가 아닌 각 시집 안에서 국지적으로 분산, 응집되는 양상을 보이는 구조적인 현상임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절의 통계 범주와 문헌 범주를 분명히 제한할 필요

가 있다. 본 절의 정량 분석 대상은 철저히 당대에 정립된 《초학집》, 《유학집》내의 17개 시집군으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후대에 별도로 수집·편성한 《투필집(投筆集)》을 17개 시집군과 동일한 층위의 분석 범주로 혼용하지 않는다. 다만 연작시의 배열 원리 및 ‘세운’ 의식의 투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후대에 《투필집》으로 독립 편성된 〈후추흥〉 130수를 창작 구조의 해석을 위한 참고사례로 원용한다. 다시 말해, 본 절의 정량 분석 및 검증은 17개 시집군 내부의 어휘 분포를 엄격히 반영한다. 다만, 어휘 분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작시의 구조 원리를 이론적 근거로 삼아 보완적으로 활용·참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孫之梅는 《투필집》을 단순한 연작시의 집합이 아닌 “웅장하고 정교하며, 엄격하게 통일된 구조”<sup>53)</sup>를 갖춘 시의 모듬으로 해석하였다. 그는 그 시 배열 원리의 중심을 ‘제 1첩(疊)이 후추흥 13첩 전체를 관통하는 벼리(綱)이다.’라는 문장에 두었다. 이어 그는 〈후추흥〉 130수의 구조 전개를 분석하면서 첫 두 첩의 시들이 반청복명 활동을 주도한 수군(水軍)을 창작의 주선으로 삼은 데 비해, 이후에는 시인 자신을 작품의 중심으로 이동시켰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전환점이 곧 〈후추흥〉 3첩에 있음을 지적하였다.<sup>54)</sup> 이는 특정 작품이 연작시 전체의 구조 전환을 매개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전점의 시의 의미가 개별 작품의 내부에만 있지 않고, 시의 배열과 전환 방식 안에서도 구조화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은 어떤 어휘장이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못지 않게, 그 어휘장이 어느 배열 구간에서 응집되는가라는 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朱莉美의 논의는 이러한 관점을 더욱 구체화한다. 그는 《유학집》 내부의 시기와 시집의 편제를 검토하면서 〈후추흥〉계열의 시들이 내부의 다른 시집들과 창작 시기가 겹침에도 별도로 편성된 이유를 “후추흥 계열의

53) “《投筆集》宏大精美·整一嚴謹的結構”, 孫之梅, 위의 책, 408頁.

54) “〈後秋興之三〉又起到了轉折過渡的作用.”, 孫之梅, 위의 책, 415頁.

시들을 《투필집》으로 분리·편성한 것은 반청복명 운동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5)</sup>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투필집》은 총 13첩의 구성으로 ‘〈후추홍〉 8수’를 13차례 중첩한 형태의 연작 시인데, 이 배열 자체가 하나의 역사 과정, 즉 반청 복명 활동의 전 과정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었다.<sup>56)</sup> 이에 대해 그는 陳寅恪의 “투필집은 사실상 명·청시기의 시사(詩史)이다.”와 같은 평가를 인용하며, 전겸익이 시로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역사적 의미를 갖추었고 이를 통해 ‘세운’의식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였음을 방증하였다.<sup>57)</sup> 이러한 논의는 본 절의 중간층 교차 검증에 방법론적 당위성을 마련해준다. 전겸익의 시학체계에서 ‘세운’은 단순히 시대적 배경을 시어로 읊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시의 편성 배열, 시어의 선택과 배치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시적 질서로 구조화하는 방식, 그것이 ‘세운’의 실질적인 구현 방식이다.

〈病榻消寒雜詠〉<sup>58)</sup>에서도 시편의 배열이 시적주체의 시간적 경험과 긴밀하게 대응하는 또 다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후대 연구자들은 해당 연작시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시 안에서 초년(初), 중년(中), 노년(老)의 세 단계를 나누고, 과거 벗들과 함께 시를 논하고 책을 읽으며 교유했던 경험을 회고하였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sup>59)</sup>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노년의

55) “〈後秋興〉系列獨立爲《投筆集》，因此集記錄其參與鄭成功反清運動之所有過程，有別於《有學集》。”，朱莉美，〈錢謙益詩歌研究〉，中國文化大學，2010，48頁。

56) 朱莉美，위의 논문，188頁，박유빈，〈명말 청초 文宗 전겸익 시 意象의 통과變(1) — 《投筆集》장법 구조의 계승 및 창신을 중심으로〉，〈중국어문논총〉 제112집，2023，230쪽 참조。

57) 朱莉美，위의 논문，295頁。

58) 〈病榻消寒雜詠〉은 《有學集·東澗詩集》에 수록되어 있으며，총 46수의 연작 시로 구성되어 있다。

59) 《有學集·病榻消寒雜詠》其九：“詞場稂莠遞相仍，嗤點前賢莽自矜”，《有學集·病榻消寒雜詠》其二十三：“中年招隱共丹黃，括柏猶餘翰墨香”，《有學集·病榻消寒雜詠》其三十四：“老大聊爲秉燭遊，青春渾似在紅樓”，朱莉美，위의 논문，164-165頁。裴世俊，〈錢謙益詩歌研究〉，銀川：寧夏人民出版社，1991，65頁，孫之梅，〈錢謙益與明末清初文學〉，濟南：山東大學出版社，2010，416頁 등에 보임。

전검익이 특정 회고를 담은 시 작품을 생애 주기와 경험의 층위에 따라 그 배열 순서를 전략적으로 배열·조직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통찰을 전제로 하면, 다음의 <그림 1>, <표 3> 처럼 특징시어가 17개 시집군<sup>60)</sup> 전체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가지적으로 보여주는 정량적 분석의 가치는 한층 명확해진다. 아래 <그림 1>의 히트맵은 시어 빈도의 평면적인 분포도가 아니다. 이것은 전검익이 17개 시집의 연대기적 편제를 관통하며 망국의 시대 속에서 시적주체로서의 자신과 역사 인식을 어떤 밀도로 재배열해 나갔는가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시사(詩史)의 지형도’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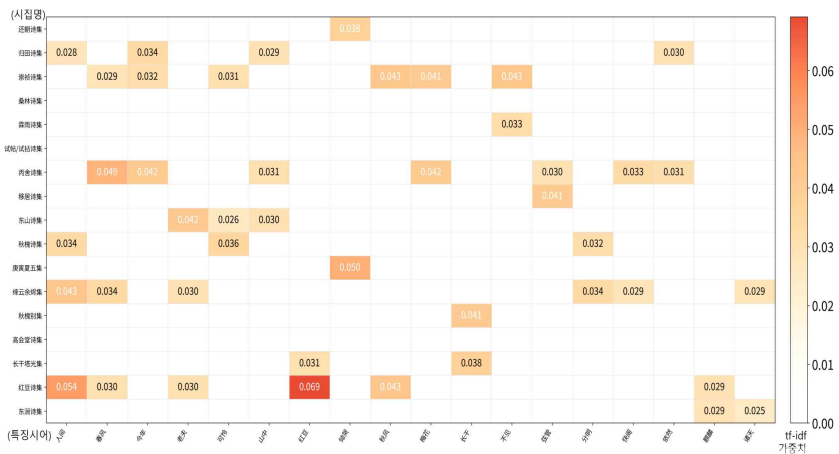
<표 3> 17개 시집군에서 핵심 시어의 반복 출현 빈도 및 tf-idf 가중치

시어	반복 출현수	tf-idf 총합	tf-idf 평균	tf-idf 최대값	출현 시집 목록
人間	4	0.159517	0.039879	0.054431	02歸田詩集/10秋槐詩集 12絳雲餘燼集/16紅豆詩集
春風	4	0.142352	0.035588	0.048953	03崇禎詩集/07丙舍詩集 12絳雲餘燼集/16紅豆詩集
今年	3	0.107259	0.035753	0.041595	02歸田詩集/03崇禎詩集 07丙舍詩集
老夫	3	0.10219	0.034063	0.041921	09東山詩集/12絳雲餘燼集 16紅豆詩集
可憐	3	0.092449	0.030816	0.035614	03崇禎詩集/09東山詩集 10秋槐詩集
山中	3	0.090492	0.030164	0.030966	02歸田詩集/07丙舍詩集 09東山詩集

60)

17개 시집군 작품 수											
1	還朝詩集	124	6	試拈詩集	104	11	庚寅夏五集	37	16	紅豆詩集	237
2	歸田詩集	108	7	丙舍詩集	144	12	絳雲餘燼集	199	17	東澗詩集	131
3	崇禎詩集	311	8	移居詩集	74	13	秋槐別集	73			
4	桑林詩集	58	9	東山詩集	189	14	高會堂詩集	45			
5	霖雨詩集	95	10	秋槐詩集	108	15	長幹塔光集	99			

시어	반복 출현수	tf-idf 총합	tf-idf 평균	tf-idf 최대값	출현 시집 목록
紅豆	2	0.100046	0.050023	0.069083	15長幹塔光集/16紅豆詩集
行宮	2	0.089984	0.044992	0.061347	11庚寅夏五集/12絳雲餘燼集
慟哭	2	0.088361	0.04418	0.050122	01還朝詩集/11庚寅夏五集
秋風	2	0.085725	0.042863	0.042971	03崇禎詩集/16紅豆詩集
梅花	2	0.082866	0.041433	0.041595	03崇禎詩集/07丙舍詩集
長幹	2	0.079097	0.039549	0.041113	13秋槐別集/15長幹塔光集
不見	2	0.075865	0.037932	0.042754	03崇禎詩集/05霖雨詩集
弦管	2	0.071298	0.035649	0.04139	07丙舍詩集/08移居詩集
分明	2	0.065625	0.032812	0.033639	10秋槐詩集/12絳雲餘燼集
快閣	2	0.061982	0.030991	0.033345	07丙舍詩集/12絳雲餘燼集
依然	2	0.060788	0.030394	0.031152	02歸田詩集/07丙舍詩集
麒麟	2	0.058403	0.029201	0.029446	16紅豆詩集/17東澗詩集
諸天	2	0.05416	0.02708	0.028946	12絳雲餘燼集/17東澗詩集



〈그림 1〉 17개 시집군에 나타난 특징 시어의 분포, 응집도

먼저 <표 3>을 살펴보면, 17개 시집군의 ‘상위 30위 내에 반복적으로 출현한 특징시어’<sup>61)</sup>는 ‘人間’, ‘春風’, ‘今年’, ‘老夫’, ‘可憐’, ‘山中’, ‘紅豆’, ‘行宮’, ‘慟哭’, ‘秋風’, ‘梅花’, ‘長幹’, ‘不見’, ‘弦管’, ‘分明’, ‘快閣’, ‘依然’, ‘麒麟’, ‘諸天’ 등으로 정리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시어의 절대적인 출현 빈도만으로 특징시어의 반복성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표 3>은 핵심시어의 반복 빈도와 tf-idf총합<sup>62)</sup>, tf-idf평균<sup>63)</sup>, tf-idf최대값<sup>64)</sup>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을 통해 ‘특징 시어’가 얼마나 넓게 사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즉, 전체 시 텍스트 안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각 해당시어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어떤 시집에서 가장 강하게 응집하는지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의 중간층 검증은 각 수치가 나타내는 절대값 자체의 크기보다 상대적 순위와 분포 양상에 의존하여 시어운용의 지속성과 지배적 특성, 시어의 응집력과 국지적 특이성을 함께 읽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 기준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시어는 ‘人間’, ‘春風’이다. 이들은 총 4개의 시집군에 나타난다. 이는 곧 시어 운용의 지속성이 가장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지표가 가리키는 바는 서로 다르다. ‘人間’의

61) 먼저 17개 시집을 대상으로, 각 시집별 특징 시어를 상위 30위까지 추출하였다. 이는 微詞雲의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하였다.

62) tf-idf 총합은 해당 시어가 출현한 모든 시집에서 얻은 tf-idf가중치를 모두 합산한 절대적인 총합이다. 반복 출현 횟수가 적어도 일정 시집에서 밀집도 있게 운용되었거나, 꾸준히 높은 가중치로 운용된 시어들이 높은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는 전경익이 《초학집》, 《유학집》전체 시에서 가장 무게감(가중치)이 컸던 최상위 시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척도이다.

63) tf-idf평균치는 ‘tf-idf 총합’을 ‘반복 출현 횟수’로 나눈 값이다. 이는 해당 시어가 출현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갖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예를 들어, 17개 시집 가운데 2회만 출현한 시어의 tf-idf평균치가 지나치게 높다면 이는 전경익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어라기 보다, 특정한 의도 하에 응집하여 운용한 ‘시어’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64) tf-idf 최대치는 해당 시어가 17개 시집을 거치는 동안 ‘가장 높았던 단일 시집에서의 가중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를 통해 특징시어가 어느 시집에서 가장 높은 시 텍스트의 장악력을 보이는지 파악할 수 있다.

tf-idf총합은 0.159517, tf-idf평균값은 0.039879, tf-idf최대값은 0.054431이다. 이는 ‘春風’의 0.142352, 0.035588, 0.048953 보다 모두 높은 수치를 보인다. 즉, 두 시어는 여러 시집군에 걸쳐 지속적인 시어 운용의 양상이 확인되었으나, 전체 시 텍스트 차원에서의 지배력과 단일 시집 내에서의 응집도는 ‘人間’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시어가 출현한 시집목록을 보면, ‘人間’은 《歸田詩集》, 《秋槐詩集》, 《絳雲餘燼集》, 《紅豆詩集》에 분포하는 반면, ‘春風’은 《崇禎詩集》, 《丙舍詩集》, 《絳雲餘燼集》, 《紅豆詩集》에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차이는 사실상 ‘春風’이 정서적 감응과 자연 경물의 융합 측면에서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핵심 시어라면, ‘人間’은 역사적 사실을 더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시어로서 더 큰 지배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있다.<sup>65)</sup>

반면, ‘紅豆’, ‘行宮’, ‘慟哭’과 같은 시어는 총 2개의 시집군에서만 반복 출현한다. 그러나 이들 시어의 tf-idf총합, tf-idf평균, tf-idf최대값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紅豆’는 tf-idf총합 0.100046, tf-idf평균 0.050023, tf-idf최대값 0.069083을 나타내고, 《長幹塔光集》과 《紅豆詩集》에 분포한다. ‘行宮’은 0.089984, 0.044992, 0.061347을 나타내며 《庚寅夏五集》과 《絳雲餘燼集》에 분포하고, ‘慟哭’은 0.088361, 0.04418, 0.050122을 나타내며 《還朝詩集》과 《庚寅夏五集》에 분포한다. 이들 세 어휘는 시어운용의 지속성 관점에서는 그 폭이 넓지 않다. 이는 복수의 시집군에서 폭넓게 분포하는 공통분모가 아닌 특정한 “역사 상황(境)을 만나 감응하고, 그 상황이 죄어올 때의 정서적 압박”<sup>66)</sup> 아래서만 고도로 압

65) 《有學集·讀梅村宮詹豔詩有感書後四首》: “水天閒話天家事, 傳與人間總淚零.”, 《有學集·桂苑四十五首》: “秋風從此无才思, 不為人間生桂枝” 등의 시편에서 처럼, ‘人間’이 왕조, 국사(國史), 행궁(行宮), 망국의 기억 등 역사적 사실성을 지닌 어휘와 직·간접적으로 결속하는 시어군이 여기에 포함된다. 위의 시들 역시 단순한 ‘인간세상, 세속’을 가르키기보다 왕조의 사건, 시대의 비극이 도달하는 현실 공간을 지시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66) 《初學集·瑞芝山房初集序》: “及其境會相感, 情偽相逼, 鬱陶駘蕩, 無意於文, 而文生焉, 此所謂不能不為者也.”

축되어 운용하는 특수한 목적을 지닌 시어에 가깝다. 그러므로 시어의 반복성과 지속성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고 해서 해당 시어의 지배력이 약하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紅豆’, ‘行宮’, ‘慟哭’처럼 낮은 tf-idf총합과 높은 tf-idf평균, tf-idf최대값을 갖는 시어의 경우 보편성보다는 역사적 특이점이나 국지적 응집력을 강하게 드러내는 표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秋風’, ‘梅花’, ‘不見’, ‘依然’은 두 시집군에서 반복 출현하지만 ‘紅豆’, ‘行宮’, ‘慟哭’과는 또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秋風’은 tf-idf총합 0.085725, tf-idf평균 0.042863, tf-idf최대값 0.042971, ‘梅花’는 0.082866, 0.041433, 0.041595, ‘不見’은 0.075865, 0.037932, 0.042754, ‘依然’은 0.060788, 0.030394, 0.031152로 나타난다. 이들 시어는 위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정한 응집력을 보인다. 그러나 구조적 의미 측면에서 볼때 이들은 정서적 감응과 경물의 융합에 기반한 시어 운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에 해당한다. 이것은 본질의 중간층 분석이 확인시켜주는 바이기도 하다. 즉, 2.1에서 논의한 ‘1644년 이후’의 역사 표지로서의 어휘장이 전면에서 부상하는 한편, 정서적 감응과 경물의 융합에 기반한 어휘장 역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1에서 논의한 어휘장의 ‘단절’이 아닌 ‘재배열’이라는 논지를 한층 공고히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반복 빈도가 동일한 시어들이 모두 균등한 시학적 무게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分明’(tf-idf총합 0.065625, tf-idf평균 0.032812, tf-idf최대값 0.033639)과 ‘諸天’(0.05416, 0.02708, 0.028946)의 경우 두 시집군에서 반복 출현하지만, 출현 빈도 수치상으로는 ‘分明’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1644년 이후 시집군인 《秋槐詩集》, 《絳雲餘燼集》에서 편중된 분포양상을 보인다. 한편 ‘諸天’은 《絳雲餘燼集》, 《東澗詩集》에 출현하며 응집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이는 후기 국면에서 ‘세운’의 시어 운용 범위가 종교적 질서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용례가 된다.

나아가 위 <그림 1>의 시각화 모형은 앞선 해석을 보다 구체적인 분포

양상으로 제시한다. 이는 17개 시집군에서 <표 3>의 ‘반복 출현한 특징 시어’가 어느 시집군에 집중적으로 응집하는지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1>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1644년 이후 구간의 특정 시집군에서 일부 시어가 높은 응집도를 지닌 핵심 분포 구역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人間’은 《歸田詩集》, 《秋槐詩集》, 《絳雲餘燼集》, 《紅豆詩集》에 분포한다. 그런데 <그림 1>에서는 《紅豆詩集》에서 가장 높은 응집도를 보인다. 또한, ‘老夫’는 《東山詩集》, 《絳雲餘燼集》, 《紅豆詩集》에 분포하며 1644년 이후 시집군으로 갈수록 더욱 강하게 응집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分明’과 ‘諸天’은 각각 《秋槐詩集》, 《絳雲餘燼集》과 《絳雲餘燼集》, 《東澗詩集》에서의 선택적·국지적 응집을 보여준다.

이처럼 <그림 1>은 ‘1644년 이전과 이후’라는 이분법적 어휘장의 구분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한적인 반복 출현’과 ‘1644년 이후 특정 시집군에서의 국지적 응집’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전경익의 시에서 ‘세운’의 이동은 시집 전편을 균일하게 관통하는 단일한 원리로 수렴되지 않는다. 그것은 제한적으로 반복 출현하는 ‘표지(시어)’들이 시집 배열 속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지속되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1644년 이후 특정 시집에 집중적으로 응집하는 분포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실은 ‘세운’이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흐름의 단순한 반영이 아닌, 시집의 배열과 편성, 시어의 선택과 배치를 통해 역사 인식을 구조화하는 시학 규범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절에서 수행한 중간층의 검증은 2.1의 거시적 층위에서 분석한 어휘장의 재배열 논지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재배열은 전체 17개 시집군 내에서 구조적 지속성, 전체 시 텍스트에 대한 특징시어의 지배력, 시어 운용의 국지적 응집성이라는 세 층위로 분화되어 실현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 3. 미시적 결속: 대표 시편의 ‘자세히 읽기’를 통해 본 ‘시사’의 구현방식

앞서 2.1에서는 전겸익 시의 어휘장 재배열을 거시적 차원에서 검토하였고, 2.2에서는 해당 재배열이 시집 배열 내에서 어떠한 분화와 응집의 양상으로 구현되는지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가 개별 시편 안에서 어떠한 구조적 결속과 의미 구성의 방식으로 실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절의 대표 시편은 해당 작품 내에 1644년 전·후의 특징 시어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인물·지명 기반 개체명의 참조(NER)<sup>67)</sup>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1644년 이전’의 중심 어휘장 대비 ‘1644년 이후’ 어휘장의 우세도를 결합한 점수(8.129122)를 토대로 선정하였다.<sup>68)</sup> 그 결과, ‘1644년 이전’의 <복사행증비릉주오양급간가현추중오양시시연치문복고이고생위유(菑肆行贈毗陵周午陽給諫稼軒推重午陽時時延致問菑故以賈生爲喻)>, ‘1644

67) 개체명 인식(NER) 척도를 활용하여 인물·지명의 참조 밀도와 출현빈도를 산출하였다. 전겸익의 시편 전체에서 특정 개체명(인물, 장소, 사건)이 출현한 총 횟수, 해당 개체명이 출현한 시구, 각 작품의 전체 구 안에서 개체명이 포함된 구의 수, 개체명이 시 텍스트 안에서 특정 사건이나 의미망으로 얼마나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기반으로 대표 시편을 선정하였다. 하버드(<https://dataverse.harvard.edu/dataverse/chgis>)에서 제공하는 학술 연구용 지명 자료 ‘v6\_time\_pref\_pts\_utf\_xian80.dbf’에서 지명 개체명을 텍스트 파일로 전환하여 전겸익 시에 언급된 지명과 비교·대조하였으며, 전겸익 시에 언급된 인물명과 中國歷代人物傳記資料庫(CBDB)의 데이터 비교·대조하여 최종적으로 인물, 지명 개체명 목록을 확정 후 아래 지표값을 산출하였다.

제목	총 빈도	인물명 출현구	장소명 출현구	사건명 출현구	개체명 구비율	개체명 밀도	개체명-사건 결속도
壬申...	24	0	1	0	1	0.041666667	0
贈萬...	8	0	0	0	0	0	
石田...	56	6	1	0	7	0.125	0.285714286
再題...	64	6	1	0	7	0.109375	0.142857143

68) 구체적으로 <西湖雜感·其十八>을 선정한 산출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poem\_id: 683559.0, 연도: 1650.0, 소속 시집: 牧齋有學集卷三 / 庚寅夏五集,  
line 수: 8, person\_hits: 3 | person\_terms: [‘杜宇’, ‘鐵崖’, ‘鐵崖叟’], place\_hits:  
1 | place\_terms: [‘西湖’], ner\_density: 0.5, post\_marker\_score: 7, pre\_marker  
\_score: 0, post\_minus\_pre: 7, representative\_score: 8.129122.

년 이후'의 〈서호잡감(西湖雜感)·기십팔(其十八)〉을 각 집단의 대표 시편으로 선정하였다.

1) '1644년 이전'의 대표 시편 '자세히 읽기'

〈복사행(蔔肆行)〉<sup>69)</sup>은 '세운'이 시대적 배경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는 인식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은 “그대는 낙양의 가의(賈生)가 국가를 위해 계책하여 서함에 감추어둔 《신서》와 《치안책》을 보지 못하셨소(君不見雒陽賈生能壽國, 篋衍新書治安策).”로 시작한다. 작품의 첫 구절에서 시인은 역사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는다. 대신 ‘雒陽’, ‘賈生’, ‘新書’, ‘治安策’의 역사 인물, 장소, 사건을 호출함으로써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읽는 어휘장을 조직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1644년 이전의 역사 인식의 규범은 역사적 사실의 직접적 진술보다는 비유 의미를 내포한 시어의 호출과 경세담론의 틀 안에서 우선적으로 구조화되고 있다.

이어지는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긴 탄식을 하네.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고통스런 억압이로세(痛哭流涕長太息, 身逢明盛心逼側).” 구절은 작품의 다음 의미 층위를 제시한다. ‘痛哭’과 ‘太息’은 보통의 정서적 감응의 표지가 아니다. 그것은 ‘明盛’이라는 시대적·정치적 맥락과 결합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고 정서적 감응을 표현하는 하나의 시학 실천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어휘장의 ‘결속(結束)’은 “세운은 마치 기성(箕星)이 바람을 주관하고 비성(畢星)이 비를 주관하듯 예측이 어려우니, 가의(賈生) 홀로 마음속 고통을 견뎌내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구나(世運箕風還畢雨, 可憐賈生心獨苦).” 구절에서 한층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구절에서의 ‘世運’은 단순한 시대적 배경을 지칭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대 ‘賈生’의 형상과 ‘可憐’이라는 정서 의상(意象)을 매개로 역사적 인물

69) 본문 서술의 편의를 위해 이후는 〈蔔肆行〉으로 간략 표기한다.

의 고통과 정치적 곤궁을 하나의 구조 안으로 묶어낸 시어이다.

앞서 2.1에서 살펴보았듯이, ‘可憐’은 1644이전 집단의 중심 어휘장을 구성하는 핵심 시어이다. 2.1의 논의가 어휘장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차원의 관찰이었다면, 본 절에서의 ‘자세히 읽기’는 ‘可憐’이 개별 시편 안에서 실제로 어떤 구조적·의미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可憐’은 이 작품에서 일반적인 정서적 감응의 표지가 아닌, 과거의 역사적 선례와 현재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판단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매개로 구조화 된 시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644년 이전 시편에서 ‘세운(世運)’은 전경익이 아직 시적 주체로서 시의 전면에 나서기에 앞서, 역사적 비유를 함축한 시어와 정서적 감응의 연결을 통해 현실을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 2) ‘1644년 이후’의 대표 시편 ‘자세히 읽기’

〈서호잡감(西湖雜感)<sup>70)</sup>은 ‘1644년 이후’ 시집군에서 ‘세운’의 인식규범에 따라 재배열된 어휘장을 가장 압축적으로 제시한 사례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 작품의 첫 네 구, 즉 “육릉(六陵)의 상록수 나이드니 가을 풍경이 쓸쓸하네. 통곡하는 유민들은 모두 머리가 하얗게 희어졌네. 남쪽으로 건너간 고관귀족은 더 이상 옛 국가를 대변하지 않지만, 서호의 물안개 가득한 수면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있네(冬靑樹老六陵秋, 慟哭遺民總白頭。南渡衣冠非故國, 西湖煙水是清流).”는 ‘西湖’, ‘遺民’, ‘白頭’, ‘衣冠’을 묶어 배치함으로써 ‘1644년 이후’ 집단의 중심 어휘장이 담고있는 시적 주체, 공간 기억을 한 덩어리의 의상군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사실상 이 작품의 역사성은 ‘역사적 사건’의 나열에 있지 않다. 시적 주체의 상황(‘白頭’), 사회 보편적 인식(‘遺民’), 역사 공간의 기억(‘西湖’)을

70) 《有學集·西湖雜感·其十八》：“冬靑樹老六陵秋，慟哭遺民總白頭。南渡衣冠非故國，西湖煙水是清流。早時朔漠翎彈怨，它日居庸宇喚沐。苦恨嬉春鐵崖叟，鈿兜詩報百年愁。”

형상화 한 시어들을 한 덩어리로 구조화 하여 묶음으로써, ‘세운’과 ‘시적 주체’가 동시에 역사가 되는 데에 있다. 이는 2.1의 분석 결과와도 부합한다. 2.1에서 1644년 이후의 중심 어휘장은 ‘人間’, ‘分明’, ‘老夫’, ‘白頭’, ‘分明’, ‘文章’, ‘白頭’, ‘蓮花’, ‘諸天’, ‘秦淮’, ‘劫灰’ 등으로 재배열되었으며, 핵심어(keyness) 분석 결과에서는 ‘蓮花, 諸天, 須彌, 故國, 秦淮’ 등이 ‘1644년 이후’ 집단의 변별 표지(특징 시어)로 나타났다. 즉, 1644년 이후 시집군의 시어 운용은 시적 주체, 특정 역사 공간, 멸망 왕조의 잔영, 종교적 질서를 중심으로 한 특징 시어의 ‘응집’ 양상을 보였다.

〈서호잡감〉은 이러한 시어들의 응집이 실제 작품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白頭’는 망국의 역사를 투영한 시적주체의 형상이며, ‘西湖’는 멸망 왕조의 기억을 호출하는 역사 공간과 연결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어휘장 운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떠한 ‘시어’들이 서로 결합하여 ‘세운’의 어떠한 의미 층위를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작품 독해는 裴世俊의 논의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해 “구절 구절이 모두 망국의 참상을 담고 있다.”<sup>71)</sup>라고 해석하며, ‘冬靑樹老’, ‘南渡衣冠’, ‘漠翎彈怨’을 통해 서진(南渡衣冠), 남송(冬靑樹老), 원(漠翎彈怨)에 대한 망국의 기억과 유민의 정서를 포개어 읽어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역사전고(典故)의 나열이 아니다. 그는 ‘慟哭’, ‘彈怨’, ‘苦恨’과 같은 시어의 반복을 통해 “글자 하나하나가 원망을 머금고, 시 편편마다 한스러움을 의탁한다.”<sup>72)</sup>의 경계를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이로 인해 작품 전체가 ‘세대를 초월한 슬픔과 자책의 고통’<sup>73)</sup>으로 가득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서호잡감〉이 ‘두보시가 지닌 침울하고 우울한 정취’<sup>74)</sup>를 계승하였으나 이것이 단순한 모방에

71) 裴世俊, 《錢謙益詩歌研究》, 博士學位論文, 蘇州大學, 1985, 239頁.

72) “字字含怨, 篇篇寄恨”, 裴世俊, 위의 논문, 240頁.

73) “充滿隔世之悲, 負疚之痛.”, 裴世俊, 위의 논문, 240頁.

74) “〈西湖雜感〉詩看, 它具有杜甫詩歌的沉鬱蒼涼”, 裴世俊, 위의 논문, 240頁.

그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강력한 정서적 함축을 통해 역사의 패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 기억과 ‘청 왕조에 투항한’ 유민으로서의 개인 부채의식을 융합한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본질의 ‘자세히 읽기’는 본 논문이 정량지표를 통해 확인한 ‘1644년 이후’ 어휘장의 이동 양상을 질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1644년이라는 역사적 분곡점을 경계로 전검익의 시학은 자연경물을 매개로 한 서정시의 범주에 벗어난다. 그 변화의 핵심은 뚜렷하다. ‘세운’을 시학 원칙으로 반영하는 중심 어휘장에 속하는 시어들이 작품 내부에서 최고 밀도로 응집하고, 그 응집이 망국(亡國)이라는 거시적 차원의 역사 의식과 유민(遺民)이라는 미시적 차원의 자기인식을 동시에 호출하는 방식으로 조직된다는 점이다.

위 두 작품의 대비는 2.1과 2.2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거시적 층위에서의 ‘어휘장 재배열’과 시집 배열 속에서의 ‘시어의 국지적 응집’이라는 시어 운용의 두 가지 현상이 실제 작품안에서는 시어의 묶음, 즉 의상군(意象群)의 결속 방식 차이로 구체화되어 주제경향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Ⅲ. 결론

1644년을 전후한 전검익의 시 창작 변화는 역사 어휘(시어)의 ‘증감’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 전검익의 시 창작은 ‘세운(世運)’의 전개, 즉 역사적 사실을 시적 언어로 조직하는 중심 어휘장과 개별 시어가 재배열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644년 이전’ 국면에서는 타인을 향한 호명(與君), 부재의 확인(不見), 과거에 대한 반추(依然), 그에 수반되는 정서적 표상(可憐), 자연 경물(秋風, 春風, 梅花)에 해당하는 시어들이 중심 어휘장을 이루었다. 반면, ‘1644년 이후’ 국면에서는 시적 주체의 자기 형상(老夫, 白頭), 특정 역사 공간

(秦淮), 멸망 왕조의 잔영(劫灰), 종교적 우주질서(諸天, 蓮花)를 담은 어휘장이 중심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세운’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단순한 반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의 인식 방식, 시적 언어를 구성하는 중심 어휘장이 변화하는 인식론적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전겸익의 시에서 ‘세운’은 역사인식의 규범인 동시에 시적 주체가 인지한 역사적 사실을 시적 언어로 구조화하는 ‘시사(詩史)’의 규범이기도 한 것이다.

2.2, 2.3의 논의에서 확인하였듯이 시와 시집의 배열 분석, 대표 시편에 대한 ‘자세히 읽기’는 앞서 도출한 결론을 한층 더 단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전겸익의 17개 시집군에 대한 중간 층위의 검증은 사실상 전체 시집을 관철하는 단일한 어휘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있지 않다. 사실상 그것은 다수의 시집군에서 반복 출현하는 ‘특징 시어’들이 시와 시집의 배열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시어가 ‘1644년 이후’ 특정 시집군에서 선택적으로 ‘응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있다. 2.3의 미시적 층위에서의 분석 역시 이같은 구도를 뒷받침한다. ‘1644년 이전’ 집단을 대표하는 <복사행(蔔肆行)>에서는 역사적 비유를 담은 시어와 정서적 감응이 현실 인식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반면, ‘1644년 이후’ 집단을 대표하는 <서호잡감(西湖雜感)>에서는 시적 주체, 역사적 공간, 망국의 기억 등이 집약된 어휘장을 중심으로 긴밀한 결속(結束)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의 의의는 ‘영심’, ‘세운’, ‘학문’이라는 전겸익 시학이론 체계의 핵심 요소 전체를 한꺼번에 해명하는데 있지 않다. 기존 연구를 토대로, 이 가운데 근거(根底)로 해석되어온 ‘세운’을 먼저 독립적으로 고찰하고, 전겸익의 시가 ‘세운’을 어떠한 어휘장과 의상군의 결속으로 조직하였는지를 재현가능한 절차를 통해 분석하였다는 데 있다. 이 토대 위에서 후속연구는 ‘세운’의 참조 구조와 역사 공간의 관계를 개체명 인식(NER)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규명할 수 있다.<sup>75)</sup> 나아가 역사적 사건과 정서의 결

75) 본 논문에서 수행한 정량지표의 산출, 분석, 시각화의 구체적인 코드 및 과정은 모두 재현 가능한 형태(ipynb)로 자료화하였으며, 이후 Github에 공유함

함이 ‘영심’의 촉발로 이어지는 방식, 전고(典故)의상의 선택과 변용원리를 ‘학문’의 차원에서 고찰한다면, 전겸익 시학의 세 요소가 맺는 내부 논리를 보다 온전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박유빈, 〈명말 청초 文宗 전겸익 시 意象의 通過 變(1) — 《投筆集》장법 구조의 계승 및 창신을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112집, 2023.
- 오진영·김희진, 〈대학생의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자세히 읽기 (Close Reading) 연구: ‘에포케’ 태도를 강조한 ‘고전 읽기와 토론’ 강좌 수업 사례〉, 《교육문화연구》 제31집, 2025.
- 이광호, 〈의미소 ‘必’의 어휘장 변화〉, 《한국어문학회어문학》, 제105집, 2009.
- 최인자, 〈문학 기반 ‘자세히 읽기’ 교육의 재인식〉, 《청람어문교육》, 제85집, 2022.
- 丁功誼, 〈錢謙益文學思想研究〉, 博士學位論文, 首都師範大學, 2005.
- 方良, 《錢謙益年譜》, 北京: 中國書籍出版社, 2017.
- 葛穩罡, 〈論李商隱詩歌意象的類型特征〉, 《時代文學》 제2집, 2009
- 古尊師, 《錢謙益詩歌三變》, 北京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 郝潤華, 《錢注杜詩與詩史互證方法》, 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1999.
- 雷宜遜, 〈錢謙益的著作·人品和詩學〉, 《中國韻文學刊》제2집, 1998.
- 李明軍·朱利俠, 〈靈心·世運與文學 — 錢謙益的人生際遇與儒家詩學體系之構想〉, 《唐山師範學院學報》 제36집, 2014.
- 李宗娟, 《錢謙益“詩史”觀念再探》, 山西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

로써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羅明月, 〈意象疊加淺論〉, 《意象疊加淺論》 제21집, 2009.
- 裴世俊, 《錢謙益詩歌研究》, 銀川: 寧夏人民出版社, 1991.
- 裴世俊, 《錢謙益詩歌研究》, 博士學位論文, 蘇州大學, 1985.
- 錢謙益, 《錢牧齋全集·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 孫之梅, 〈靈心·世運·學問—錢謙益의 詩學綱領〉, 《山東大學學報》, 1996.
- 孫之梅, 《錢謙益與明末清初文學(增訂版)》, 濟南: 山東大學 出版社, 2010.
- 王豔芳, 〈中國古典詩歌意象의 組合技巧〉, 《語文教學與研究》 제8집, 2011.
- 王彥明, 〈佛教視閫下的錢謙益詩論體系探微〉, 《文化與詩學》, 제1집, 2017.
- 王彥明, 《牧齋與佛教》, 福建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 嚴志雄, 《錢謙益의 ‘詩史’理論與實踐》, 北京: 中華書局, 2019.
- 楊思賢, 〈錢謙益詩歌의 “棋局” 意象〉, 《古典文學知識》, 제143집, 2009.
- 張永剛, 〈靈心·世運·學問—論錢謙益의 詩學體系〉, 《大連大學學報》 제29집, 2008.
- 張永剛, 〈“由經術以達於世務”—錢謙益의 學術路徑〉, 《鎮江高專人文》 제29집, 2014.
- 鄭童哲恒, 〈上古漢語分詞與詞性標注加工規範〉, 《語言文字應用》 제4집, 2023.
- 朱莉美, 《錢謙益詩歌研究》, 中國文化大學, 博士學位論文, 2006.
- 國家地球系統科學數據中心 ([www.geodata.cn/main/](http://www.geodata.cn/main/)).
- 錢謙益, 《初學集》 시원문 데이터, 國學大師([url, www.guoxuedashi.net](http://url.www.guoxuedashi.net)).
- 台灣歷史數位圖書館 (<https://thdl.ntu.edu.tw/index.html>).
- 中國歷代人物傳記資料庫 (<https://input.cbdb.fas.harvard.edu>).
- Gabrielatos, C, *Keyness analysis: Nature, metrics and techniques. Corpus approaches to discourse*, Oxford: Routledge, 2018.
- Alan I. Barreca, Guldi M. Lindo Glen Waddell, Savingbabise? Revisiting heeffectofverylowbirthweightclassification, *Quarterlyjournalofecono*

*mics* 126 no.4, 2011.

### <Abstract >

This article reexamines the poetic status of shiyun(世運) in Qian Qianyi's poetry through a combination of digital-humanities methods and close reading. The corpus consists of 2,153 poems from Chuxue Ji and Youxue Ji. Previous scholarship has usually treated lingxin(靈心), shiyun, and xuewen(學問) as interrelated categories within Qian's poetics. However, it has not sufficiently demonstrated how shiyun becomes visible across the corpus through lexical fields and clusters of poetic representation.

This study, therefore, redefines shiyun not as a mere historical background, but as a shishi(詩史) epistemic norm that organizes historical reality in poetic language. Methodologically, this study uses character-bigram TF-IDF and Keyness for macro lexical analysis. It then validates patterns at the mid-level by examining recurrent markers across seventeen collection groups and a heatmap. Finally, it offers close readings of representative poems to analyze textual realization.

Key Words : 전겸익(Qian Qianyi), 세운(historical momentum),  
tf-idf가중치(tf-idf), 핵심어 분석(Keyness analysis),  
어휘장(lexical filed),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